

제2260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구광모의 LG' 이유 있는 줄소송 2



박찬호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 간 까닭은 14

코스피(8일 전주 대비) **2137.23** (+49.43P)
코스닥 **652.37** (+12.23P)
환율(달러당 원화) **1157.50** (-15.5원)
금리(국고채 3년물) **1.518%** (+0.083%p)

정부 모호한 태도가 키운 괴담...세계 1위 5G '발목'

스페셜 리포트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 단지 내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공사는 몇 달째 중단 상태다. 극심한 주민 반대로 설치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주민들의 주장은 5G 시설에서 유해 전자파가 나온다는 것. 5G 상용화와 함께 탄생한 이른바 '5G 괴담'이다.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 3사는 전국 각지에서 불거지는 기지국 설치 반대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손을 놓은 곳이 많다"고 한

"유해 전자파 발생" 주민 반대 이통3사 공사 중단 '골머리' 정부 "근거없다" 말만 되풀이 반발 거세져 '뒷북조사' 눈살

숨을 내쉬었다.

▶관련기사 3면

5G 관련 시설은 과연 유해할까. 전문가들은 유해성 여부보다 모호한 정부의 태도가 괴담 확산의 배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명확한 설명도 없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한다. 관련 부처 수장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차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5G괴담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투데이는 10월 초 5G 통신 관련 시설에서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정부의 관련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정보 공개를 신청했다. 한국전파진흥원이 7월 개최한 '2019년 5G 전자파 강도 측정'을 위한 이동통신 관계자 간담회' 문서와 '5G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장비 구축 사업' 관련 문건이다. 정부는 해당 문서 공

개를 거부했다. 다만 간담회 개최 사실과 장비 구입을 위해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만 확인해 줬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5G괴담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의 태도는 오히려 네이버가 경기 용인에 제2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주민 반대에 대응한 방식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당시 전자파를 우려하는 항의가 이어지자 네이버는 측정 결과를 공개했고 여

론은 용인 주민의 'NIMBY(지역이기주의)'로 판정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신속한 근거 제시를 커녕 상용화 3개월 이후에야 안전성 조사에 나서는 등 '뒷북치기'만 하고 있다. 정부가 5G괴담을 불식시키려 했다면 사전에 위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상용화 이후에 전자파 강도 측정을 논의하는 게 순서가 틀렸다는 의미다. 이때문에 정부가 5G 서비스를 신산업의 대표주자로 꼽고 있어 유해성을 숨기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불거졌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금감원, 삼성생명 종합검사 연장

13일부터 자회사·이달 말 본사 추가 검사

'보험금 미지급 관행' 철폐 의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한다.

'서류 제출'과 '당사자 소명' 등에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종합검사의 연장선으로,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철폐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양측은 자살 보험금 사태부터 즉시 연금 공방까지 보험 시장의 적잖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삼성생명 종합검사에서 현재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즉시연금 문제는 제외됐다. 하지만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비롯해 지연 지급,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고강도 검사는 불가피했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13일부터 일주일간 손해사정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에 대해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이후 이달 말에는 삼성생명 본사에 대

암·입원보험금 관련 생명보험사 분쟁 처리 현황 (단위: 건, 괄호는 수용률)

회사	지급건고	전부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삼성생명	551	217 (39.4%)	263 (47.7%)	71 (12.9%)
한화생명	136	109 (80.1%)	6 (4.4%)	21 (15.4%)
교보생명	130	93 (71.5%)	11 (8.5%)	26 (20.0%)

*출처: 고용진 의원실, 금융감독원

한 추가 검사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진행한 검사에 이은 추가 검사 성격이다.

금감원은 8월 26일 삼성생명서비스 검사에 이어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삼성생명 본사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검사 때까지 자료 제출 등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추가로 나가게 됐다"며 "삼성생명 본사와 손해사정 자회사 간 소명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10면에 계속 서지연 기자 sjy@



제주 역사 '은빛 물결' 속으로

늦가을 제주의 언덕엔 은빛 물결이 일렁인다. 10일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 산골부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역사 연합뉴스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유료방송 기업결합 승인... '이통 빅3'로 재편

공정위 '이통사+케이블TV' M&A 조건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 간 인수합병(M&A)을 사상 처음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업계가 이통 3사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

다. ▶관련기사 5면
공정위는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 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산업은행이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4차산업혁명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 KDB산업은행이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KDB 넥스트라운드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제2의 벤처신화를 써 갑니다
KDB 글로벌챌린저스 200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합니다
KDB 혁신성장지원 혁신성장지원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갑니다

KDB산업은행

내일의
산업은
미래를

“기술만이 살길”... ‘구광모의 LG’ 이유 있는 줄소송



SK이노 배터리 기술 1심 시작으로 유럽 3개사 상대 냉장고 도어 1심 중 TCL 통신 특허 1심까지 줄이어 TV·스마트폰 등 점유율 하락 공격경영으로 주도권 확보 포석



LG그룹 특허 기술 소송 일지

날짜	회사명	피고	내용
4월 29일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관련 핵심 기술 탈취
9월 24일	LG전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양문형 냉장고 특허 기술 '도어 제빙' 침해
11월 4일	LG전자	하이센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기술 등 TV 관련 특허 침해
11월 6일	LG전자	TCL	휴대폰 LTE 통신 기술 침해

‘인화(人和)경영’을 앞세웠던 LG그룹의 최근 행보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휴대폰, 가전,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경쟁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룹의 주요 먹거리 사업이 최근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기술 경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LG전자는 6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 중인 피쳐폰

과 스마트폰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앞서 개발한 ‘LTE(롱텀 에볼루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골자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3가지다. 이들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이번 특허 소송과 관련해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LG전자는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LG전자가 경쟁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중국 하이센스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LG전자가 중국 TV 업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7년 TCL 이후 12년 만이다. 앞서 9월에도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유럽 가전업체인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기업이 유럽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의 특허 기술인 ‘도어 제빙’ 기술을 침해했다는 게 핵심이다. LG전

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당시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당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송전은 일찌감치 4월 LG화학이 포문을 열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의도적으로 채용해 영업 비밀을 빼내 갔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오하이오주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그룹이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배경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서려 있기 때

문이다. LG는 TV, 스마트폰,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에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특히 TV의 경우 상황이 심각하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올해 북미 TV 시장에서 LG전자는 출하량 기준으로 점유율 11.6%에 그쳐 4위에 머물렀다. 1위에 오른 삼성전자는 22.2%는 물론이고 중국 TCL(21.2%)보다 저조한 성적이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최근 몇 년간 글로벌 ‘톱 5’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하다. 배터리 분야 역시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적인 문화를 바꾸려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구 회장은 9월 취임 후 첫 사장단 워크숍에서 “제대로, 그리고 빠르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미래가 없다는 각오로 변화를 가속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최정우, 포스코인에 ‘기업시민 DNA’ 심는다

포스코가 최정우(사진) 회장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보다 전사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채널을 모바일로 확대했다. 현대인들이 24시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기기를 통해 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0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달 최정우 회장의 경영이념인 기업시민 행동지침이 담긴 ‘WPM(With POSCO Mindset) 앱’을 개발했다. WPM 앱은 △경영이념 체계도 △기업시민 현장 △비즈니스 에티켓 △CEO 메시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구체적인 경영이념과 행동

경영이념·비즈니스 에티켓 등 행동지침 담은 WPM 앱 개발 스마트기기 통해 전사적 확대



지침을 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WPM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포스코 임직원의 앱 설치율은 98.8%에 달하며,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떨어지는 계열사들은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앱 설치를 권유하고 있다. 포스코인내셔널리얼은 최근 팀 리더(직책자)들에게 메일을 통해 “그룹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앱을 통해 포스코인으로서 갖춰야 할 비즈니스 에티켓을 공유하고, 기업시민 정신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당사 설치율의 경우



포스코가 개발한 ‘WPM 앱’ 캡처 화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조직원들의 앱 설치 독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취임과 동시에 “전 임직원에게 새 경영이념인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내재화하겠다”고 선포했으며, 실제 직원 대상 기업시민 전문가 교육, 기업시민 실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2월에는 포스코그룹 임원·리더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움(PIUM, POSCO Insight Forum) 강연에 사외 전문가를 초청해 기업시민 활동의 성공적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의식을 높였다. ‘기업시민봉사상’도 신설했다. 포스코는 사내에 물론 그룹사, 협력사, 외부 사회공헌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기여도, 임직원 자발적 참여 등을 사내·외 전문가들이 평가해 수상자를 매년 선발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직책부임자와 승진자,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시민 필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시민 활동 진행 단계에 맞춰 e러닝 등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해 인재육성을 통한 경영이념을 내재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h·point

고객에게 드리는 행복한 혜택

H.Point는 하나의 ID로 현대백화점그룹 전 계열사의 온라인 서비스에 로그인 가능하고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포인트 적립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멤버십입니다.

3중 안전검증 거쳤지만... “癌 걸린다” 불신 팽배

품이지 않는 '5G 괴담'

'5G(5세대 이동통신) 전자파 괴담'과 관련해 최근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상가 단지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주민 간 불화가 일고 있다. 통신사 5G 기지국 구축을 위한 주민 협의회에서 전자파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과 통신 속도가 느려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찬성파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통신 3사, "5G 전자파 안전성, 정부가 국민 설득해야" = 통신 3사는 5G 전자파 괴담과 관련해 "주민들이 '5G 전자파 괴담'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기지국 설치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전자파 위험도가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인 곳이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전파법상 통신사가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전파관리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기지국 설치가 완료되면 전자파 수치가 인체보호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전자파 강도 측정 검사도 합격해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과기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등 3중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5G 전자파 유해성은 없다"고 항변했다.

본지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3사에 공동 질의를 벌인 결과 통신사들은 "정부와 관계기관의 촘촘한 검증을 받아 5G 기지국을 설치하는 만큼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다

기지국 설치 놓고 주민 갈등 심화 통신사 "정부가 승인해 놓고" 난감

유럽·미국 부작용 우려 설치 보류 "정부가 객관적 결과물 제시해야"

록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마련해 기지국 설치를 막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국내 전역 아파트와 상가단지 등의 5G 기지국 반대 민원에 대해 KT는 "과기부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전자파 주민설명회, 전자파 강도 측정을 벌여 주민을 설득하고 있지만 막연한 두려움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실제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는 곳은 설치를 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KT와 같은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LG유플러스는 '소비자 역할 차별 피해'를 우려했다.

통신사들은 대책 마련과 관련해 5G 기지국을 설치하려면 전파관리소 심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강도 측정 검사, 과기부 최종 승인 등 겹겹의 법적 장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5G 전자파 안전성 입증 문제는 "안전검사를 하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5G 전자파 위험'에 무선기지국 설치 보류한 유럽과 미국 = 유럽과 미국 등 선

5G 전자파 괴담 관련 통신 3사 입장

	kt	SK telecom	U+
5G 전자파 인체에 무해한가?	무해	무해	무해
5G 괴담에 대한 자체 대책?	없음	없음	없음
주민 설득을 위한 노력은?	주민설명회(공청회)		
5G 괴담 해법은?	전파법에 따른 정부 안전대책 기준에 부합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5G 괴담(기지국 반대) 민원 해결책은?	정부가 법적체계를 마련해 5G 기지국 강제 설치면 부여	반대 민원 심할 경우 기지국 철수로 제2의 피해 우려	

진국에서는 '5G 전자파 위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수많은 테스트 시험을 진행 중이다. 해외 유력 매체와 연구기관 역시 '5G 전자파' 위험에 대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실제 국민 건강권 침해를 우려해 기지국 설치를 보류한 곳도 여럿이다.

러시아 국영방송 RT는 5G 스마트폰 사용이 '뇌종양·자폐증·불임·심장 중앙·알츠하이머' 발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고, 스위스에서는 '5G 기지국에서 나

오는 전자파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수천 명의 시민이 기지국 구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스위스 제네바 등 일부 주에선 시민 온라인 청원에 5G 기지국 건설을 전면 유보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밀 밸리 시의회는 5G 무선 기지국 설치를 전면 금지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5G 괴담'은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부와 통신사의 안전한 대응이 소비자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김 팀장은 "소비자단체에서 5G 전자파 유해성을 점검할 기술력이 없는 데다, 과기부나 전파진흥원 등의 기관이나 통신사가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더 고도의 기술을 다루고 있다"며 "전자파 위험과 관련한 '5G 괴담'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흘리지 말고,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결과물로 국민과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전문가 갑론을박

“주파수 높다=위험하다 오해서 비롯” “인체 완전히 무해하다 입증도 어려워”

5G 통신 유해성 여부에 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술의 인체 유해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전자파가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는 입증 결과도 없는 만큼, 전자파의 일종인 5G의 유해성 역시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5G 기술은 3.5Ghz(기가헤르츠) 주파수의 대역과 28Ghz 대역으로 나뉜다. 현재 3.5Ghz대역은 상용화됐으며, 업계에 따르면 28Ghz는 내년 상반기쯤 본격적인 상용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인체 유해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28Ghz 대역의 유해성 여부다. 최대 2Ghz 대역이었던 4G기술과 현재 사용 중인 5G의 3.5Ghz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대역인 28Ghz 사용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일각에서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지점은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안전기준이 있으며 28Ghz 역시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다는 사실이다.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파환경연구팀장은 “이미 인체에 관한 보호기준은 300Ghz 대역에까지 마련돼 있다”며 “ICNIRP(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에서 마련한 300Ghz 이하 대역의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 기준은 전 세계가 준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회 국립전파연구원 공업연구관 역시 “한국은 2007년부터 통신에 필요한 기지국을 설치할 시 전자파 강도가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며 “3.5Ghz 대역의 상용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기술이 상용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주파수가 높다=위험하다’는 생각은 전자파에 관한 오해에서



9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수도 베른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들이 5G 안테나 설치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비롯된다고도 말했다.

김기회 연구관은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가시광선의 주파수는 Thz(테라헤르츠)에 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주파수가 높은 대역의 전자파”라며 “빛이 우리의 몸을 뚫고 나가지 않듯 28Ghz에 달하는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는 애초에 우리 몸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G부터 5G에 이르기까지 전자파가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는 실험적 입증이 없는 만큼 28Ghz 대역의 도입에 대해서도 그 유해성을 안심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아직 실험적 방법으로 확증적으로 전자파의 무해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며 “인체에 완전히 무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현재까지 휴대전화 전자파뿐 아니라 여러 전자파 이슈에 관한 실험이 있었으나 일관된 결과를 낸 적이 없다”며 “휴대전화 장치 사용자의 경우 청신경 초종이라는 질병이 발생했다는 일부 실험 연구 결과도 있어 5G 역시 이 같은 잠재적 유해성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KB금융그룹 | 국민은행 |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X BTS 적금 II

KB국민 BTS 체크카드

KB X BTS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오다!

KB X BTS 적금 II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KB국민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나 영업점 및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일 제2019-1669-6호(2019.10.04기준) * 광고 유효기간 2020.04.19까지 [KB국민 BTS 체크카드] *서비스는 이용실적 조건 및 개별 서비스 제공여부도 존재하며, 카드신청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없음. [연체이탈]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이율과 같이 적용함. *일시불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적용. *유이자할부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의 유이자할부수수료를 적용. *체크카드 우불교통대금, 소액신용결제대금 등 연체시 정상이자율은 다음 중 높은 금리로 적용함. ①상법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②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일 제191008-03391-POS(2019.10.08-2020.04.19) *문의처: KB국민카드 홈페이지 www.kbcard.com 또는 고객센터 1588-1688

*연체이탈을 회원별, 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연체 가산이자율 3%(p), 법정최고금리(24%내)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 KB국민카드

반도체 불황 직격탄... 시총 상위기업 영업이익률 '반토막'

주요 대기업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이 작년과 비교해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불황 등 악재가 겹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이투데이가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조사한 집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비금융사를 제외한 유가증권 시장 시총액 100위 기업 중 올해 1~3분기 누적 연결실적을 공시한 상장사 62곳의 총매출액은 844조4072억 원으로 작년 858조7925억 원보다 1.68% 줄었다.

하지만 총 영업이익은 54조9031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2조7205억 원 대비 46.55% 급감했다. 총 순이익 역시 79조7472억 원에서 올해 39조8441억 원으로 감소폭이 50.04%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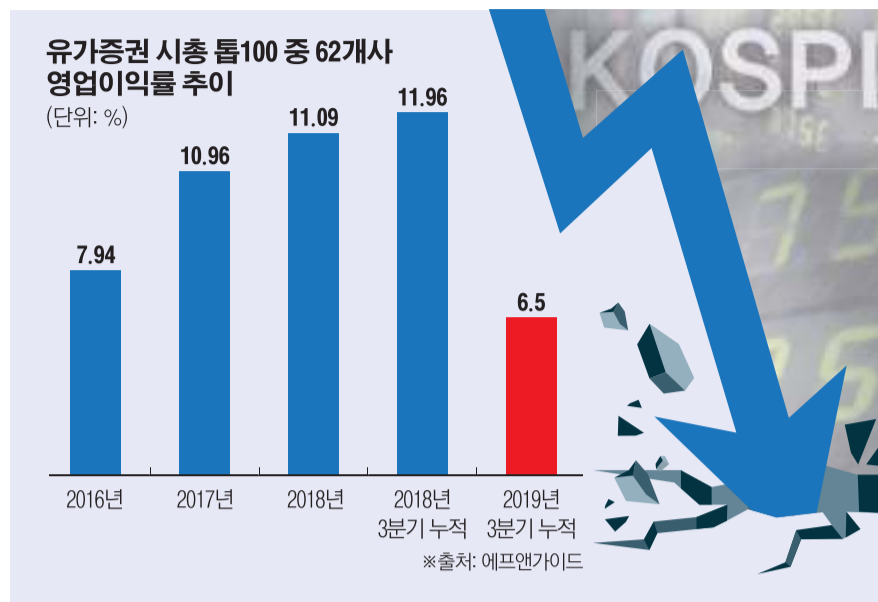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올해 3분기 누적 평균 영업이익률은 6.50%로 작년 같은 기간 11.96%

100대 기업 중 실적 발표 62곳 영업이익 54조9031억...46.5% 푹 영업이익률 6.5%로 5.46%p ↓ 삼성전자·하이닉스 부진 영향 커

美·中 갈등 해결 국면·기저효과 내년 전반적으로 실적 반등 기대

보다 5.4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작년에는 물건을 1000원어치 팔아 120원가량을 수익으로 거뒀다면 올해는 65원을 벌었다는 의미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기업 영업활동 자체의 업적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익성 지표다. 수익성을 평가하는 다른 지표로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 등도 있지만 이자비용이나 영업외이익 등이 포함돼



순수한 영업활동에 대한 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더한다. 사드 사태와 후유증을 겪은 2016~2017년에도 62개사의 영

업이익률은 각각 7.94%, 10.96%로 오히려 늘었다. 더욱이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된 작년에는 11.09%로 수익성이 향상됐지만 1년 새 반절로 줄었다.

이처럼 영업이익률의 급전직하 요인은

로는 미·중 무역분쟁과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일본의 수출규제 등도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최근 2년간 호황을 보인 반도체 업황이 한풀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작년 62개 상장사 총 영업이익의 63.67%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24.16%, 51.54%였지만 올해 3분기 누적으로는 12.09%, 12.34%에 그쳤다. 여기에 석유화학 상장사들의 수익 악화도 영업이익률 하락을 키웠다.

다만 내년에는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데다 올해 큰 폭의 이익 역성장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익 증가를 기대하는 시각이 대체로 많다.

현대차증권 이창환 연구원은 "증권과 보험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실적의 증가할 전망이다"이라며 "특히 올해 실적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 이익이 일정 회복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널뛰기 유가에 '미끌'... 석화, 영업의 하락 9곳 '최다'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성이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업종의 경우 종목 수는 적지만 낙폭 규모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8일 이투데이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시총 상위 100곳의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날까지 실적을 발표한 62곳 중 영업이익이 악화된 곳은 총 35곳이다. 석유화학 업종 기업이 총 9개사로 가장 많았는데, 세부적으로 화학이 5곳, 석유 및 가스가 4곳이었다. 건설(3곳)과 무선통신(3곳)이 그 뒤를 이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 영업이익 하락이 컸던 기업은 에스오일(S-Oil)로 3분기 누적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7.8% 감소한 4105억8300만 원으로 잠정 집계

에스오일, 3분기 57.8% 떨어져 LG화학·SK이노 50%대 감소 롯데케미칼·현대중공업도 크게 줄어

됐다. 이어 LG화학(-52.82%)과 SK이노베이션(-51.70%)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그 밖에 롯데케미칼(-48.77%)과 현대중공업지주(-44.79%)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기업의 실적 부진 원인에 대해 시장에선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와 유가 변동 등을 꼽는다. 내년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정유업계에 대한선 정제마진 강세에 따른 반등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합형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석유화학 산업은 지속되는 증설 및 미·중 무역분쟁, 유가 변동성 확대로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다만 상황 개선이 이뤄질 시 재고 축적 니즈와 함께 스프레드가 개선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유산업은 IMO 황함량 규제 시행으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조선사들의 등경유 수요 급증과 함께 정제마진 개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업종 역시 영업이익의 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의 경우 -84.91%, 삼성전자는 -57.14%를 기록했다.

반도체의 경우 4분기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내년을 반등 시점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일 발표된 10월 반도체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78억6000만 달러로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성장의 원인은 전년 대비 단가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역기저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은 2020년 2월로 기대한다"며 "NAND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DRAM 가격의 하락폭이 완화되고 있어 반도체 수출금액의 방향성 전환에 대해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종목으로는 유한양행이 -

3분기 누계 영업의 악화 현황 (단위: %, 전년 동기)

종목명	3분기 누계	업종별
유한양행	-90.53	제약
SK하이닉스	-84.91	전기전자
S-Oil	-57.80	석유 및 가스
삼성전자	-57.14	전기전자
LG화학	-52.82	화학
SK이노베이션	-51.70	석유 및 가스
롯데케미칼	-48.77	화학
현대중공업지주	-44.79	석유 및 가스
대우건설	-40.34	건설
현대제철	-37.87	금속 및 광물
삼성물산	-37.05	복합 산업
삼성전기	-32.67	전자 장비 및 기기
GS건설	-30.55	건설

※출처: 에프앤가이드

90.53%를 기록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그 밖에 대우건설(-40.34%)과 현대제철(-37.87%), 삼성물산(-37.05%) 등도 이름을 올렸다. 고대영 기자 kodae0@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유료방송 시장, KT 독주에 LG·SK 맹추격 '3강 구도'

'이통사+케이블TV' M&A 승인... 시장 재편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하면서 유료방송(IPTV·케이블TV 등)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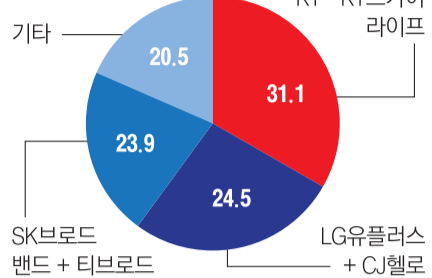
향후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한 LG유플러스는 과거 정통부 승인만 받으면 CJ헬로를 품게 되고, 티브로드와 합병을 요청한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거 정통부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그간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가 시장 독과점 우려에 조정이 맞춰진 만큼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인수합병 과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편으로 LG유플러스-CJ헬로 합산 점유율이 24.5%, SK브로드밴드-티브

로드 합산 점유율이 23.9%가 돼 1위 KT와의 점유율 격차가 6%포인트에 불과한 3사 경쟁 국면이 된다. 다만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 사용료 및 흡수 송출수수료 등은 과거부와 방통위 소관이라 이에 대한 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지체될 여지는 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공정위 조건부 승인 결정 환영" = 공정거래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합병 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단위: %)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입장문을 통해 "향후 방통위와 과거 정통부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돕고, 중소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

스도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어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유료방송 등장에 "가격 더 오를까?"... 승인 우선 조건 '가격인상 억제' = 유료방송 시장의 거대화로 통신과 케이블을 독점하게 될 유료방송 채널이 특정 지역에서 가격을 급속도로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T와 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균등하게 분포된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 일대는 가격 경쟁력이 거세져 당분간 되레 이용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지만

실제 특정 유료방송 및 케이블이 독과점으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농산어촌이나 소규모 도시의 경우 해당 유료방송 채널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가격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제공했던 인센티브나 할인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과 같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조건부 승인 과정에서 '가격인상 억제'에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무리한 가격 인상 등의 역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결합승인 이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이 가격 인상 억제 조항을 어길 경우 패널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yes@



"OLED 화면 생생해요" LG디스플레이가 CJ CGV와 제휴를 맺고 OLED 체험 부스를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OLED 체험 부스는 내년 2월까지 CGV 용산아이파크몰, 영등포, 왕십리, 여의도 등 4개 영화관 로비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진은 CGV 용산아이파크몰을 찾은 관람객들이 체험 부스에서 OLED의 화질을 즐기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 LG디스플레이

질문 하나에 비정규직 수십만명 '왔다 갔다'

'8월 근로형태' 통계 결과 논란 '고용 예상기간' 문항 추가되면서 정규직서 비정규직으로 바뀐 듯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86만7000명 증가한 배경에 대해 정부가 '병행조사 효과'란 답변을 내놓자 야당에선 '통계 사기', '영터러 조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고작 질문 하나로 비정규직이 50만 명이나 늘었다는 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조사 방식도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2002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용역·

특수형태·가정내·일일)로 구분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는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 근로자로 정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는 허점이 많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집계된다. 1~4인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 성격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병행조사표에 '고용 예상기간' 문항이 추가된 기존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답변이 바뀐 응답자의 상당수가 이런 사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단 이번 통계에서 정규직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74.3%에 불과했다. 나머지 25.7%가 실제로 정규직일지는 불분명하다.

반대로 비정규직이 과다 추계되기도 한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또는 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

로자는 모두 비정규직 중 시간제로 집계된다. 올해 시간제 근로자는 총 315만6000명이었는데, 이 중 125만9000명은 다른 근로 형태에 중복집계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곧 정규직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 일자리위원회에서 시간제와 관련해 질 좋은 시간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간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분류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되긴 했지만,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행 비정규직 기준은 사내하청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 등 모든 근로 형태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월 통계청 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집계되지 않는 일부 근로 형태를 포함, 지난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40.9%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당시 통계청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33.0%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미래농업 머리 맞댄 韓中日 "스마트농업으로 효율성 높일 것"

농기평·농경연 '한중일 미래농업 심포지엄' 개최

"일본의 농업현장도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고, 농업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현장의 효과를 빅데이터로 수집해 활용하고,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려고 한다."(안동혁 일본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책임연구원)

"중국은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업 현장에 도입하고 결합하는 스마트 농업을 추진 중이다. 농기구의 지능화와 무인화 등 정부의 정책 추진과 함께 거대 인터넷 기업들도 농업 기술 관련 계획을 내놓고 있다."(천리밍 중국농업대 경제관리대학 교수)

"한국 농업생산액의 57%를 시설농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낮은 생산성을 극복해야 하고, 무엇보다 빨라지는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이인복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

한국과 중국, 일본의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속도전이 치열하다. 급

변하는 기술과 사회 변화 속에서 미래농업의 모습을 3국은 모두 '스마트농업'이라고 결론 내렸다. 기후와 음식이 비슷하고, 농업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만큼 각국의 기술 현황과 정책을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주관하는 '한중일 미래농업 심포지엄' 지난 8일 오후 서울 한국교통대 컨벤션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일본은 차세대 스마트농업의 방점을 빅데이터에 찍고 있다.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다양한 데이터를 얻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 보급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 안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차세대 농업을 향한 스마트농업의 추진'을 주제로 발표하며,



왼쪽부터 안동혁 일본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 책임연구원, 천리밍 중국농업대 경제관리대학 교수, 이인복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 사진제공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근 일본이 시행 중인 '스마트농업 실증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안 책임연구원은 또 "지금까지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기술을 실증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씨를 뿌리는 것부터 생산물의 유통까지 전 과정에 이르는 모든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라며 "농업의 대형화는 수량이 아니라 인력의 투입을 줄이는 것인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력 투입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스마트농업-정책 및 실제 적용 사례'를 발표한 천리밍 중국농업대 경제

관리대학 교수는 중국은 ICT와 과학기술 도입과 함께 농업-농촌의 현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농업 추진을 위한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동시에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농가 정보화 능력 양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기업들의 관심이다.

천 교수는 "사료와 종자를 생산하던 '다베이농' 기업의 경우 스마트농업정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서비스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도 지난해부터 양

돈농가와 과수원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스마트농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농업분야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은 이제 교육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인복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장은 '대한민국 농업기술혁신 정책의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에서 역사가 짧은 만큼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선진국은 긴 시간 경험을 축적했고, 중국은 짧은 시간이지만 대규모 공간의 이점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간도 시간도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와 경험을 짧은 시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다. 이 교수는 "학생에 대한 교육,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해소, 국제화, 다양성을 가진 벤처 사업의 육성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공동기획: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

‘靑 비서·안보·정책실장’ 文정부 반환점 기자간담회

노영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2년 6개월 임기에 대해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은 하반기 임기 정책방향에 대해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성공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였다”고 정권 전반기를 평가한 뒤 “국민들 보시기에 ‘부족하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경제 △한반도 평화 △국민 안전 △공정사회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정책 노력을 거론했다. 특히 경제 분야의 경우 포용적 성장 등 복지정책,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지원, 무역협정 등 시장개척 노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집권 초기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한 차례의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또한 노 실장은 경제 분야와 관련해 가장 먼저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의 성과를 들었다. 다만 노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

“실수요자 보호정책 계속 유지
특정지역 고가 아파트 구매자
자금조달 출처 소명해야할 것”

노영민 “2년 반은 정상화 과정
이제 정책성으로 평가받겠다”

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복지사 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실장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풍적인 투자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제질 개선도 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노 실장은 “은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대응해왔다”며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의 성과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제지평을 넓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 노 실장은 “정부는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들었다”며 “여전히 풀어야 할



노영민(가운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속제도 많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의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 실장은 공정사회 가치와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와 관련해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책 성과”에 대한 지지를 내비쳤다. 그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다. 질척 또

한 잘 알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조만간 특정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

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김 실장은 “이 대책들을 언제(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실장은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 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나경원 “내년 예산안 14.5조 삭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14조5000억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먼저 으뜸장을 놓은 것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504조 원 규모로 편성하려던 내년 예산은 여당의 요구에 따라 513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469조6000억 원)보다도 9.3% 증가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청년층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

민이익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과 미래 세대들의 등골을 휘게 하는 ‘등골브레이크 예산’은 절대 안 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산, 특정세력을 위한 눈먼 돈을 찾아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1월호 발매

COVERSTORY 인생茶 한 잔 하실래요?

PART1. 차 입문 - 차근차근, 차의 세계에 다가가기
PART2. 차의 진실 - 신아초 전문가 전문회와 다담(茶談)하다
PART3. 맛을 차 분석 - 취향 저격, 내게 맞는 차 고르기
PART4. 체질별 한방차 - 내 몸이 茶茶 좋아지는 건강 한 모금
PART5. 캠핑 체형 1박 2일 - “평주와 다비(茶道)를 까요”
PART6. 힐링 찾길 순례 - 차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찾아낸 명소 5곳5색

신라비가 만난 사람

김한식이 그려온 11월에는
빙하기 싫어 공언해요!
인디그래우드의 전설,
신촌블루스를 만든 남자 ‘영인호’

친동과 현비를 위한 창작으로
윤영적 예술세계를 수놓다
실그림 아티스트
손인숙 작가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죠”
박주영의
김홍조

타면타면 산책 청리언덕 넘어 김광석골목까지,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대구 청리언덕으로 가는 길에 가끔 동우생각을
종알았다. ‘별의 고장’이 울려 퍼지는 청리언덕 위에
백합 필 작게 나는 흰 나뭇잎 향내 맡으며... 어릴 적 배운
노래도 노랫말이 또렷이 떠올랐다. 우리라 큰데
동경을 묘사한 백화골목을 차차 아늑한 언덕이
나타났다. 청리언덕은 상상했던 것만큼 아름다웠다.

더불어 숲

호수를 담은 마음으로
언지 못할 사랑이 있더라

귀촌

인생의 쓴맛 안엔 보약도 들어 있다

애석한 사실 하나 귀찮고 그의 귀농 이야기를
시작해야겠다. 귀농 7년 차. 농사도 살림도 어딘
자리 잡힐 만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문기(문)하
미는 아직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자나 깨나 전명을
출리는 것 같다. 화살을 쏘았으나 여태 과녁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속사정을 모르는 남들은 일쑤
‘귀농우수사례’로 치지만, 사실은 슬며 시련에
가깝다는 게 아닌가.

고고가게

지하철로 떠나는 오래된 맛집, 이용하기 고고가게를 지난
5개월에 걸쳐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으로 나눠 총
6곳을 소개했다. 맛과 추억, 음식 냄새와 사람 냄새가 공존
파이어로건 그곳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려 한다. 그동안의
여성을 총망라하며, 특별히 해외 독자들과의 친목을 위한 영문 버전도 함께 준비했다.

시니어 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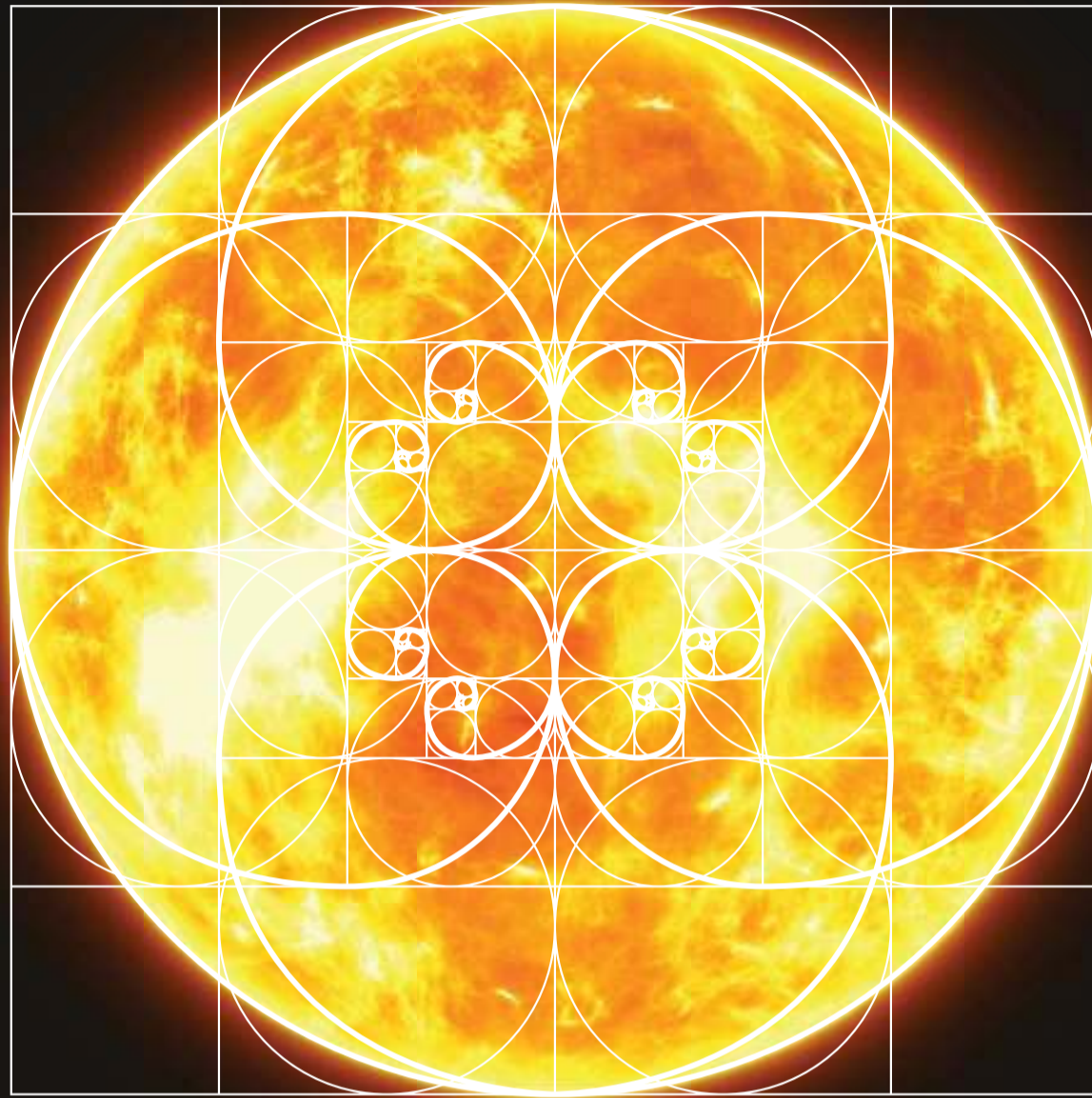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노화 예방에 좋은
녹차 활용 레시피

상속과 증여 알아보기

김성우 변호사
기업승계
최신 트렌드와 전략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한화는 고갈되지 않는 단 두 가지 자원에 집중합니다 인간의 창의성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누군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함께 뜻을 모은다면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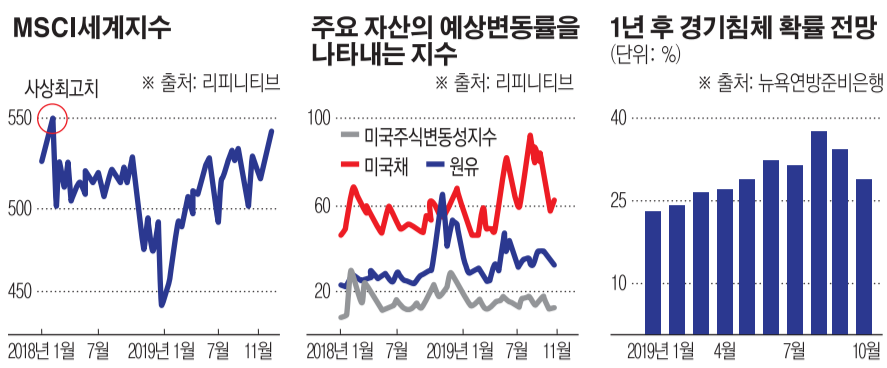
급격한 기후변화와 에너지빈곤문제
이 거대한 지구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화와 세계는 이미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UN의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맞춰
77억 명 누구나 더 쉽고 더 편리하게 태양광에너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앞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며
지구촌 곳곳의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오늘이 내일도 변함없이 계속되도록
지속가능한 친환경 솔루션을 연구합니다

글로벌 경기 바닥론 부상... 증시 사상 최고치 근접

MSCI, 최고치까지 1.3%p 남아 초저금리, 실물경제 뒷받침 기대 각국 재정지출도 심리개선 일조



세계 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불과 1% 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다. ‘완세 난타전’을 벌여온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심각한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를 리세션(경기침체)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후퇴하면서 금과 국제 같은 안전자산으로 물리던 자금이 어느새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 배경에는 초저금리가 시장과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MSCI세계지수는 8일 543을 기록했다. 이로써 지수는 2018년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550까지 불과 1.3%포인트만을 남겨뒀다. 당시 세계 증시는 미국의 대규모 감세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와 저금리 기조가 공존하면서 거침없이 뛰었다.

이달 들어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다우지수를 비롯한 브라질 등 신흥국 일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증시도 29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메르켈 녹인 ‘꽃밭침 애교’
 앙겔라 메르켈(왼쪽) 독일 총리와 남편 요아킴 자우어가 9일(현지시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서 열린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정담게 감격의 순간을 맞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장벽이 무너지기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무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장벽 붕괴는 장벽이 아주 높고 두껍더라도 결국 뚫린다는 가르침을 준다”고 말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메르켈 총리는 생후 3개월 만에 부친을 따라 동독으로 이주, 이후 통일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됐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탄핵’ 이번주 청문회 ‘워터게이트 사건’ 재현하나

여론 악화면 재선 치명타
상원 재판 유죄판 파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탄핵조사를 진행 중인 미국 하원이 이번 주 핵심 증인 3명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연다. 야당인 민주당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청문회’ 재현을 베풀고 있다.

미하원 정보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과 15일 이른바 ‘우크라 의혹’의 핵심 증인 3인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실시한다. 13일에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켈트 국무부 유럽·우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참석하며, 15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가 증언에 나선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들 3인은 앞선 비공개 청문회에서 트럼프에 불리한 증언을 내놓은 인물들이다. 트럼프와 측근들이 대선 경쟁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수사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미국의 군사 원조를 연계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의 진술이 수만 명의 미국인이 지켜보는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 원장은 “증인 3명이 나서는 공개 청문회는 미국인이 증인을 평가하고 신뢰도를 판단하며 사실에 대해 직접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개 청문회가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불러온 1973년 ‘워터게이트 청문회’를 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시 ABC, CBS, NBC 방송이 돌아가며 250시간에 달하는 청문회를 중계했는데, 시청자의 71%가 생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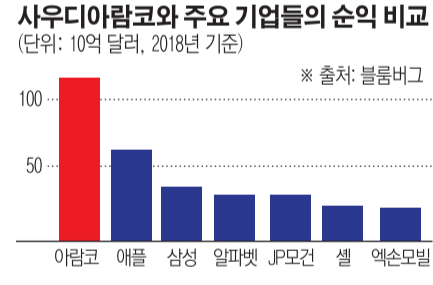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열리는 공개 청문회인 만큼 공격수 민주당과 이를 방어하는 공화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일 전망이다. 청문회에서 불리한 증언이 나와 여론을 악화시키면 트럼프의 재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압박을 부인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탄핵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에게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4월에 한 전화 통화 녹취록을 청문회 직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미하원에서 탄핵이 소추되고,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 유죄로 나오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세기의 IPO’ 아람코 개미에겐 ‘그림의 떡’

개인투자자 분배 물량 0.5% 불과 대부분 사우디 왕족·해외 기관 몫



‘세기의 IPO’로 꼽히며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아람코의 기업공개(IPO)가 개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사우디아람코가 이날 공개한 투자 설명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물량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사우디 리야드증권(타다울거래소)에 상장 예정인 아람코는 전체 자본 중 5%를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가치가 1조2000억 달러(약 1389조 원)에서 최대 2조3000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은 0.5%밖에 안 되는 것이다.

매각 지분 5% 가운데 자국 내 판매 비율은 1-3%가 될 전망이며, 이중 상당 부분을 이미 사우디 왕족들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지분 대부분은 중국 국무원과 중국석유화학집단지(시노펙) 등 기관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틈을 타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와의 관계 강화를 노리고 적극 뛰어들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는 6일 여러 중국 기업이 아람코 IPO에 총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인 실크로드펀드가

최근 아람코 측과 투자를 논의했고, 국영 석유업체 시노펙과 국무원도 중국투자공사(CIC)도 최근 몇 달 새 아람코 측과 투자를 협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세계 최대 IPO로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사우디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아람코 주식을 180일 이상 보유하던 사우디 투자자에게는 보너스 주식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우디 은행은 아람코 주식 매입 자금을 우대금리로 융자해 준다. 또 아람코는 이미 연간 750억 달러의 배당 계획을 밝혔지만, 투자금을 더 끌어모으기 위해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사우디는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개혁 프로그램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아람코 IPO를 추진 중이다. 2016년 IPO 계획을 처음 발표했지만, 기업 가치를 둘러싼 논란과 재무 공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차례 연기했다.

아람코의 적정 가치를 두고는 갑론을박이 뜨겁다. 미국 경쟁사인 엑손모빌의 경우, 시가총액이 3000억 달러이고 세브런은 2290억 달러라는 점에서 아람코의 가치가 과대평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美 견제하는 中, 희토류 증산으로 ‘가격 파괴’

생산량 전년보다 10% 늘려... 장기적으로 美 자급계획 방해 목적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꺼내든 희토류의 생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 대미 수출 금지 카드를 꺼냈다가 미국이 자체 채굴로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가격을 떨어뜨려 미국의 희토류 산업 육성을 궁극적으로 방해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니혼게이지가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공업정보화부는 올해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t으로 잡았다. 이대로라면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다. 광석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분리량도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만7000t으로 잡았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생산량을 늘리는 건 자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 차량은 세계

중국이 대미 공급 제한을 시사하면서 공급 불안정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미국은 희토류 채굴 및 탐색에 필요한 허가를 빠르게 내주기로 하는 등 자체 자원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40년 가까이 정체됐던 희토류 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의식한 중국은 증산으로 대미 공세를 퍼부을 셈이다. 공급을 확대하면 세계적으로 수급이 완화해 가격 하락 압력이 걸린다. 그렇게 되면 희토류 생산 재개에 나선 미국 기업의 노력에 제동을 걸어 희토류를 전략물자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관련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미국의 민간 기업이 추진하는 분리 공장 건설 등 중국 외 공급망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민주당>

美 대선주자 워런의 '자본주의 리셋' 실현될까

"미국식 자본주의 이대론 안 된다"

최근 30년간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은 부(富)의 재분배를 거론하면서도 대체로 자본주의 기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 선두그룹에 들어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기존 자본주의 형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리셋'을 시도하고 있어 그의 실험이 실현될지 주목된다.

기업들은 민주당의 자본주의와 자신들을 향한 비판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이 이렇게 포괄적 비판을 노골적으로 내놓은 것은 워런이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지적했다.

2004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는 기업들의 일자리 아웃소싱을 비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것은 바로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런의 비판은 이들을 능가한다. 그는 임금인상 정제와 학자금 대출 부담, 지구 온난화와 총기 폭력, 높은 의료비에서 저렴한 주택 공급 부족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해 기업을 비판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변혁을 꾀하고 있다.

워런은 부유층과 기업들에 대한 최소 6조 달러(약 6959조 원) 이상의 증세 이외에도 미국 자본주의를 뒤흔들 만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하려는 부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다.

애플과 페이스북, 아마존닷컴 등 IT 대기업들에 대해 워런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으면서 해체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워런의 공약 중 하나는 아마존의 온라인 장터나 구글 검색엔진 등을 따로 분사시켜 이른바 '플랫폼 공익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은행에 대해서도 분사를 추구하고며 세월유와 가스 생산에 필수적인 '수입파쇄' 공법을 환경보호를 이유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 향후 8~15년에 걸쳐 빌딩과 자동차,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계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7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주 롤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선거유세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전방위 기업 규제 제안

구글·아마존 공익사업자로 해체
민간 의료보험·영리 대학 금지
이사회 40% 근로자 대표 선임

적으로 줄여 제로(0)로 만들겠다는 급진적인 환경정책도 내걸고 있다.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민간 의료보험은 금지하며 대학의 영리 운영도 사실상 금지한다. 대기업에는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40%를 근로자 대표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위해 제약업체와 협상한다는 것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WSJ는 증세를 제외하더라도 워런의 공약에 직접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매출이 총 5조 달러에 이르고 이들의 시가총액은 8조 달러가 넘는다고 분석했다. 뉴욕증시 S&P500 기업의 3분의 1이 해당된다.

민주당의 다른 대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난 뺏속까지 자본주의자"

공정 시장만이 기회 창출 역할
IT공룡 깨지면 혁신 벤처 수혜
WSJ "이런 노골적 제안 처음"

가 자신을 '민중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워런은 자신이 '뺏속까지 자본주의자'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시장이 이를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며 "이는 우리를 더욱 풍족하게 하고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공정하고 규칙이 있는 시장만이 이를 가능케 한다"며 "규제가 없는 시장은 부자만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빠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워런의 공약이 '자본주의의 퇴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아울러 다른 서구 국가들은 이미 워런이 제시한 것

과 같은 개선된 자본주의 체제 아래 있다고 역설한다. 이들에 따르면 많은 서구권 국가가 이미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대기업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있다.

아울러 워런의 공약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분사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전문 자본업체 배리언트퍼셉션의 조너선 테포 최고경영자(CEO)는 "워런이 IT 대기업을 분할하면 더 많은 경쟁과 혁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AT&T의 아성이 깨진 뒤에 미국 통신과 하이테크 분야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장에서 IBM의 지배력이 무너진 것은 1980년대와 90년대 소프트웨어 산업의 번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많은 기업 리더가 워런의 목표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수단과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자본주의로 성공신화 일군 다이먼·버핏 회장의 '소신'

미국 월가 대표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자본주의 개조를 부르짖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대척점에 서 있다.

그는 5일(현지시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워런은 매우 거친 단어를 쓴다. 일부는 그가 성공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라며 "나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성공한 사람을 헐뜯기보다는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이먼 회장도 미국식 자본주의 개혁의 선봉에 나서고 있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은 8월 성명에서 "기업 목적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린다"며 "주주 자본주의를 재검토하고 직원과 고객,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증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또한 지금 미국 자본주의가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 자본주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자본주의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올해 5월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서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소외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경영 관점에서 CEO들이 주주들의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컴퍼니는 2017년 2월 보고서에서 "모든 상장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운영했다면 2001~2015년에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조 달러(약 1161조 원) 늘어나고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겨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알람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람서비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금서비스	금융CMS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기업의 회계, 세무처리 능력을 검증하는 실무중심의 자격시험입니다.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핵심 강좌, 기출문제, 유형별 문제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오픈뱅킹의 시작과 끝 신한 SOL로 오픈하라!

앱 하나로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하는 오픈뱅킹시대
수수료 면제는 기본, 자산관리 서비스까지
신한 SOL로 오픈뱅킹의 모든 혜택을 누리세요!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나의 자산을 모아
한 눈에 OK

- 오픈뱅킹을 통한 타행계좌 출금이체시, 이체한도 1일 최대 1천만원
- 오픈뱅킹은 신한은행을 포함, 18개 은행이 참여하는 편리한 제도로서, 위 화면은 그 구현 예시입니다.



타행 계좌에서
자금 이체도
수수료 없이 OK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산 분석하고
솔루션 제공까지 OK

오픈뱅킹 시대를 여는
SOL 만의 이벤트
이벤트 기간 | '19.10.25~12.31

- ☑ 오픈뱅킹 동의하고 다른 은행 계좌 등록하면 최대 500만원!
- ☑ MY자산에 금융기관 등록하면 최대 50만원! 기회는 최대 3번!
- ☑ 솔로 다른 은행계좌 이용해서 수수료 없이 이체 경험하면 최대 5천원!

준법감사인 사전심사일 제2019-2-3029호(D019.10.24~2020.01.31) ※ 5만원 이상 정액에 대한 자세공과금 22%는 고객 부담이며 재산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 제한에 포함됩니다. ※ 본 이벤트 수령금액을 포함하여 기타 소득이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시거나, 솔(SO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가 반도체 공장에 간 까닭은

삼성 명사특강 첫 주자로 초청
“남과 비교 말고 나 자신에 집중”
화성·기흥·평택 등 15회 진행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인 화성 캠퍼스를 찾았다.

박 선수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메이저리거 도전 과정에서 겪었던 실패와 성공담을 들려줘 큰 호응을 얻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박찬호 선수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DSR에서 ‘2019 생기발달 문화 공감’의 첫 명사 특강자로 나섰다.

‘열정으로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박찬호 선수의 이번 특강은 신중한 임직원 수만 2100명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특히 점심시간에 진행된 짧은 70여 분의 행사 시간 탓에 ‘투머치 토크’란 별명을 가진 박 선수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후



박찬호(왼쪽) 선수가 삼성전자 명사 특강에서 직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문이다.

강연에서 박찬호 선수는 “야구로 미국 진출을 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은 막연했지만, 어머니께 세타기를 선물하겠다는 뚜렷한 동기를 마음 속에 새기고 도전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메이저리거에 입성한 후 가장 집중했던 것은 ‘나 자신’이었다”며 “야구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모인 곳이고, 어느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인 만큼 많은 임직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박 선수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감을 잃지 말고, 스스로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며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그중 야구선수를 꿈꾸는 자녀를 둔 임직원에게 박 선수는 “스스로 부족한 것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꾸짖기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말라”고 조언했다.

육진모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 노사협의회 부대표는 “박찬호 선수가 일방적으로 전하는 강연이 아닌, 임직원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박찬호 선수와 마주 앉아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임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삼성전자 ‘생기발달 문화 공감’은 10월 31일부터 12월 4일까지 기흥, 화성, 평택, 온양, 천안캠퍼스에서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송영록 기자 syr@



그랜저 3대 중 1대 친환경차

(10월 판매 기준)

내수 친환경차 판매 급증
현대차 10월까지 32% ↑

수입 전기차 441% 늘어
하이브리드 日 모델 강제

친환경차의 판매량 성장세가 국산차와 수입차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HEV) 4개 차종(아이오닉·쏘나타·그랜저·코나)은 올해 1~10월 누적 판매량이 3만370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5486대) 대비 무려 32.25%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현대차 내수 판매량이 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성장세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판매량 증가는 준대형 세단 그랜저IG가 견인했다. 10월 한 달간 그랜저 IG 하이브리드는 3040대 판매됐는데, 이는 전체 그랜저 판매량(9867대)의 약30%에 달하는 수치다. 10월에 팔린 그랜저 3대 중 1대가 친환경 하이브리드인 셈이다. 그랜저IG 하이브리드는 9월 누적 판매량 2만 대를 넘어서며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연간 3만 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부분변경 모델 ‘더 뉴 그랜저’의 출시를 앞두고 현대차가 진행한 프로모션도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아자동차의 친환경차 판매량 역시 성장세가 뚜렷하다. 기아차의 친환경차 4개 차종(K5 HEV·K7 HEV·니로·쏘울 EV)의 올해 누적 판매량은 3만2806대로

지난해 동기(2만8210대)보다 약 16% 증가했다. 전체 기아차 내수 판매량 중 4개 차종이 차지하는 비중도 6.3%에서 7.7%로 높아졌다. 4개 차종 중에서는 니로 하이브리드가 올해 1월부터 매월 1000대가 넘는 꾸준한 판매량을 보였다.

친환경차 수요 증가는 수입차 시장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중 하이브리드와 전기 모델은 총 2만3419대로 전체 수입차 판매량의 12%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디젤 판매가 약 38.9% 줄어든 반면, 하이브리드와 전기는 각각 5.8%, 441%씩 증가했다.

하이브리드 수입차는 역시 일본 브랜드가 선전했다. 10월 한 달간 하이브리드 수입차 가운데 렉스 ES300h가 242대 판매되며 베스트셀링 모델에 올랐다. 그 뒤를 토요타 프리우스가 잇는 등 10위권 내에 8개 모델이 일본 브랜드였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 비결로 연비 효율과 정속성을 꼽는다.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환경 규제 강화로 디젤의 인기가 줄어든 대신 그 대안으로 하이브리드가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될 때까지 과도기를 책임질 적절한 대안이다”라며 “하이브리드 기술이 더욱 발달하면 내연기관과 상호보완 효과가 더 커지면서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I have a Dream - 걸을 수 있는 행복

남들은 여행이다 친구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건
혼자 걸으면서 보는 세상 구경 -

이제 더 이상 계단도 언덕도 겁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내가 무릎을 일으켜 세워준 당신 덕분에
한 발 한 발 세상 속으로 두번째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을 건네하는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세요.
후원문의 : 02-597-6599 / www.ok6595.or.kr



●주최 : 재단법인 Senior Healthcare Sharing Foundation 노인의료나눔재단 ●후원 :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사랑의열매

저소득층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예정
무릎 인공관절수술 외 노인성 질환 수술 지원 예정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 지원 예정
노인 관련 의료 보조기구 지원 예정

사회적나눔을 함께 할 의료 관련 기업을 찾습니다
요실금, 치질, 전립선 등 노인질환 관련 병원 및 기업
보청기, 신발, 건강보조식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
의료기구 마케팅 테스트 대상 활용 가능

협력 문의
문의전화 : 02-597-6599
노인의료나눔재단

포스코 사외이사들, 싱가포르 기관 투자자 설명회

포스코가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투자자 홍보(IR) 행사를 개최했다.

포스코 사외이사들은 7~8일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블랙록(Blackrock)을 비롯한 싱가포르 내 지분율 상위 6개사를 직접 방문해 주주와 적극 소통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1월 100대 경영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사외이사와 주주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내외 주요 주주들을 초청해 사외이사들이 주관하는 ‘2018 Talks with Shareholders’를 진행했고, 올해는 7월에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2019 사외이사 IR’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IR에는 김신배 이사회 의장, 박병원 이사, 김주현 이사 등 사외이사 3명과 임승규 재무실장이 참석해 주주들의 관심 사항인 △이사회 구성·역할 △경영현안 △주주원정제 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포스코 사외이사들은 최근 철강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원가절감 노력과 철강 경쟁력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수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WTP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지속적인 판매 확대와 신규 고객사 발굴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또 투자와 신사업 선정 시에는 사외이사들이 투자 필요성, 위험도, 경제성 등을 심사한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사회가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위험을 점검하는 등 투자 절차 및 리스크 관리에서 사외이사들이 적극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신배 의장은 “이사회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주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인데, 이렇게 투자자들을 직접 방문해 소통할 수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주주들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공유하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승 기자 kissong@

KT, AI로 빌딩 관리... 에너지 효율 높이고 비용 줄인다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 시범서비스... 내년 초 상용화
에너지 소비 패턴 분석해 냉·난방기, 공조설비 자동제어
사용량·비용 평균 10% 절감... 관리자 작업시간도 단축

KT가 인공지능(AI)으로 빌딩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KT는 AI를 기반으로 중대형 빌딩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제어하는 ‘기가 에너지 매니저(GiGA energy manager)’ 빌딩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은 빌딩자동화시스템(BAS)에 KT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엔진 ‘로보 오퍼레이터(Robo-Operator)’ 및 지능형 컨트롤러 ‘이박스(eBox)’를 접목한 서비스다. 로보 오퍼레이터는 빌딩의 에너지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딥러닝을 통해 최적의 에너지 설비 제어 알고리즘을 도출하며, 이박스는 로보 오퍼레이터의 신호를 받아 다수의 설비를

통합 제어한다.

이 서비스는 빌딩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분석해 최적화된 스케줄로 냉·난방기, 공조설비 등의 운영을 자동 제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작업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또,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중장비 등 설비가 필요하지 않고, 이박스 단말과 전기·가스 계측기 설치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물에 적용할 수 있다.

가령 관리자가 출근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기 등 전력을 켜고 임의로 온도를 맞추는 작업 등이 필요하지 않고 외부 온도 등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비를 제어하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이 불필요하다. 만약 설비 이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시간 문자 알람을 보내주고 관제센터에 이



KT 직원들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 융합기술원에서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 시범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는 KT 전문 요원들의 원격 관제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가동·정지 시간, 가스 사용량 등 다양한 정보도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운영일지 작성 등 업무를 간소화해 업무 효율까지 높일 수 있다.

KT는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 서비스

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3개 사옥에 시범 적용해 에너지 절감률과 시스템 안정성 검증을 마쳤다. 이를 통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평균 10%가량 절감한 것을 확인했으며, 이 효과는 건물 환경과 운용에 따라 확

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국내외 빌딩자동화시스템(BAS) 전문기업들과 협력해 기가 에너지 매니저 빌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10월 지멘스(주), LS사우타와 협약을 맺고 BAS 솔루션과 기가 에너지 매니저 서비스 결합 및 고객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BAS 전문기업과 협약한 대형 빌딩에 서비스를 우선 적용해 요금제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을 정교화하고 내년 초 상용서비스로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 보안 서비스, 공기질 관리 등 KT의 미래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공간 융복합 서비스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명 KT 에너지플랫폼사업단장 전무는 “빌딩 분야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고, 매년 그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KT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차별화된 에너지 관리·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끌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와 더불어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이미지 해상도 높이는 기술로 구글 이겼죠”

인터뷰

이기수 에스프레소 미디어 대표

에스프레소 미디어의 핵심 기술은 ‘슈퍼 레졸루션(Super Resolution)’이다. 흐릿한 해상도의 사진이나 영상을 고해상도로 바꾸어 주는 기술이다. 에스프레소 미디어의 작업 결과물은 해상도가 뛰어나다 못해 신비함마저 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 수익이 될까.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기수(사진) 에스프레소 미디어 대표의 설명이다.



흐릿한 사진·영상 선명하게 ‘슈퍼 레졸루션’ 기술 보유
방송·의료기기·CCTV 등 응용 가능성 무궁무진

를 맡던 도중, 회사 측에서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기술의 가능성을 본 이 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기술은 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상파나 종편 방송국의 HD콘텐츠를 UHD로 변환해 송출하는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미디

어가 만든 장비를 방송국 측에서 구매하는 형태의 수익모델이죠.”

가능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차 집집마다 설치하고 있는 셋톱박스에 에스프레소 미디어 기술이 사용되면 영상을 송출하는 서버는 상대적으로 저화질의 영상을 송출하더라도 집에 있는 시청자는 고화질로 변환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은 사진이나 영상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글자를 식별 가능하도록 바꾸어주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때문에 CCTV영상 등에서 범죄 현장의 차 번호 등 식별이 필요한 부분을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해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응용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선명한 해상도를 요구하는 MRI나 CT등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시각물에도 접목이 가능하며 커져가는 VR영상 시장에도 적용 가능하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등 거인들과 기술을 경쟁하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이지만 꿈까지 작진 않다. “저희 기술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해상도 TV, 카메라, 셋톱박스 등 영상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모든 디바이스에 저희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김정용 기자 cogito@



“겨울방학 알차게 보내세요”

교육업계, 특강·체험행사 ‘풍성’

센닷컴, 예비 중고생 무료 강좌
1·2학기 패키지 강좌 20% 할인
장원교육, 화상 외국어 체험수업
아이챌린지, 유아 놀이체험 진행

교육기업들이 겨울방학을 앞두고 체험 및 특강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고객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서 신간 등을 미리 볼 수 있는 체험이나 무료 특강 등에 집중하는 형태다.

10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수학 전문 인터넷 강의 사이트 센닷컴은 예비 중학생과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무료 특강을 12월 3일까지 공개한다. 겨울방학 시기에 예비중1, 예비고1 학생들이 갖춰야 할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각 학년에 맞는 무료 강좌를 제공한다. 예비중1, 예비고1 대상으로 1·2학기 전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패키지 강좌도 20% 할인 판매한다. 강좌를 구매하는 모든 수강생에게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증정한다. 무료특강과 패키지 강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센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NE능률도 본격 겨울방학 마케팅에 돌입했다. 영어교육(ELT) 전문 브랜드 ‘엔이 빌드앤그로우’는 신간 문법교재 ‘그래머 텐’을 출간하고 12월 3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학부모와 교·강사를 대상으로 티칭팀 세미나를 개최한다. NE능률은 티칭팀 세미나 참석자 전원에게 그램머 텐

기본 1 교재를 증정하고, 네이버 공식 카페에 참석 후기를 남긴 사람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추가 선물할 예정이다.

체험학습도 활발히 전개된다. 장원교육은 화상 외국어 회화 프로그램 ‘장원 화상중국어’, ‘장원 화상영어’ 무료 체험 수업을 실시한다. 12월 31일까지 전 지국, 지점 장원 학습지 교사에게 신청하면 무료 수업 기회가 제공된다. 중국어, 영어 2개 과목 모두 신청 가능하고, 레벨테스트 이후 실력에 맞는 1회 무료 수업을 받게 된다. 이번 무료 체험 행사는 장원 학습지 기준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이챌린지는 ‘호비 놀이체험 패키지’ 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아이챌린지는 이벤트 기간 중 패키지를 신청한 선착순 3000명에게 마스크팩을 증정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장원사이버평생교육원은 국내 최초로 국가평생교육원의 인가를 받아 온라인 미용학위 과정을 14일 개강하고 친구 추천 장학금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 유일의 온라인 미용학위 과정으로 오프라인 출석이나 실습 없이 학점은은행 온라인 수업만으로 미용전문학위 또는 미용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기존 또는 신규 학습자가 추천한 친구가 미용학위 과정을 수강하면 1인당 20만 원의 추천 장학금도 지급한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SK텔레콤-LG유플러스-NIPA ‘5G IoT 동반성장’ MOU

“중소 혁신기업 함께 육성”

SK텔레콤, LG유플러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5G IoT 분야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10일 두 통신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5G 기반 혁신적 IoT 서비스를 발굴하고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5G 연동 기술 규격에 맞춰 IoT 제품을 검수하고 사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중



최낙훈(왼쪽부터) SK텔레콤 그룹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 박성봉 LG유플러스 품질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SKT

소기업이 이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5G IoT 관련 통신망 연동 기술 규격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5G IoT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통신사 사전 테스트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테스트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융합산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미래 ICT 산업 혁신을 이끌고 중소기업과 함께 육성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yes@

“골든브릿지운용 기관경고 금감원 처분 적법”

수능날 지각 않게 전방위 교통지원

법원 “투자신탁 재산으로 오너 거처 마련 투자자 손해 입혀”

특수관계인과 불건전 거래 행위 등 사유로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내린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0년 8월 A증권금융과 투자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펀드(신탁 14호)를 설정·운영해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를 구매했다. 이어 리조트 내 2층짜리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을 단독주택(영빈관)으로 개조하고, 시설보수공사 등을 진행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과 그의 모친을 2015년 8월 19일부터 검사종료일인 2017년 11월 1일까지 리조트 내 영빈관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5년 10월 이 회장을 경영 고문으로 계약하면서 적정한 성과 평가 없이 1년간의 성과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부터 한 달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적정성 점검’ 등 부문검사를 실시해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치는 제삼자 이익도 금지 위반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사유로 지난해

10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금감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이 회장이 영빈관에 거주하면서 리조트에 대한 관리와 경비 업무를 했다”며 “별도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보다 숙소 제공만으로 이 회장에게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부 자문에 거액의 비용을 들이기보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이해가 높고 다양한 경험 등을 갖춘 이 회장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낫다고 봤다”며 “자문료 5000만 원은 경영컨설팅 업체의 1년 자문료보다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감원의 기관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빈관 무상 거주에 대해 “골

든브릿지자산운용은 투자신탁재산을 재원으로 축사를 개조해 영빈관을 주택으로 만들어 이 회장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해줬다”며 “이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에 공사대금만큼 손실이 발생했고 임차료 등의 액수만큼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고문 계약에 대해서는 “이 회장에게 경영고문을 요청하면서 고문 계약의 필요성과 계약조건, 고문료 등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 회장의 경영고문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하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5000만 원을 경영 고문료로 결정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TV5**에 게재됐습니다

中리그 연봉 신고 안 한 선수 ‘9억 세금폭탄’

“국내 주소지 있으면 세금 내야”

프로 축구선수가 해외에서 받은 연봉을 누락시킨 채 종합소득세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축구선수 김모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2016년 2월 중국 구단과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그는 2017년 5월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자신을 한국 비거주자로 판단해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2016년도 연봉 등 33억 원가량을 총 수입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성동세무서는 2017년 10월~2018년 5월까지 김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국

에서 받은 연봉을 포함해 종합소득세 약 9억 원을 경정·고지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중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가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대부분이 국내로 송금돼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됐고, 김 씨는 국내에서 고가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했다”며 “이처럼 김 씨는 주로 국내에서 자금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가족이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할 것임을 예정한 경제활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김종용 기자 deep@

한화생명 63계단오르기



“63계단 함께 올라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한화생명 63계단 오르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회는 1251개의 계단을 오르는 국내 최초의 수직 마라톤 행사로 올해 기록 부문 500명, 베스트드레서 부문 130명 등 총 630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

서울시, 지하철·버스 늘리고 장애인 콜택시 사전 예약 받아

위해서는 시험장행 노선과 위치를 안내해 등교시간 내 시험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험장 경우 버스는 전면 유리창에 시험장행 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시험장 인근 정류소에 하차 안내방송을 한다. 또 지하철도 시험장 인근 역사에서 시험장 방향 출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수험생 수송지원 차량’ 안내문을 부착한 민·관용 차량 810대도 시험장 인근의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주요 지점 등에 대기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승차를 요청하면 수험장까지 무료로 데려다 준다.

서울시는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수험생이 수험장까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를 수험생에게 우선 배차하기로 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학교까지 이동을 원하는 수험생은 5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고객센터(1588-4388)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GMT
1547.1135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시장금리는 왜 오를까



김남현의 일가일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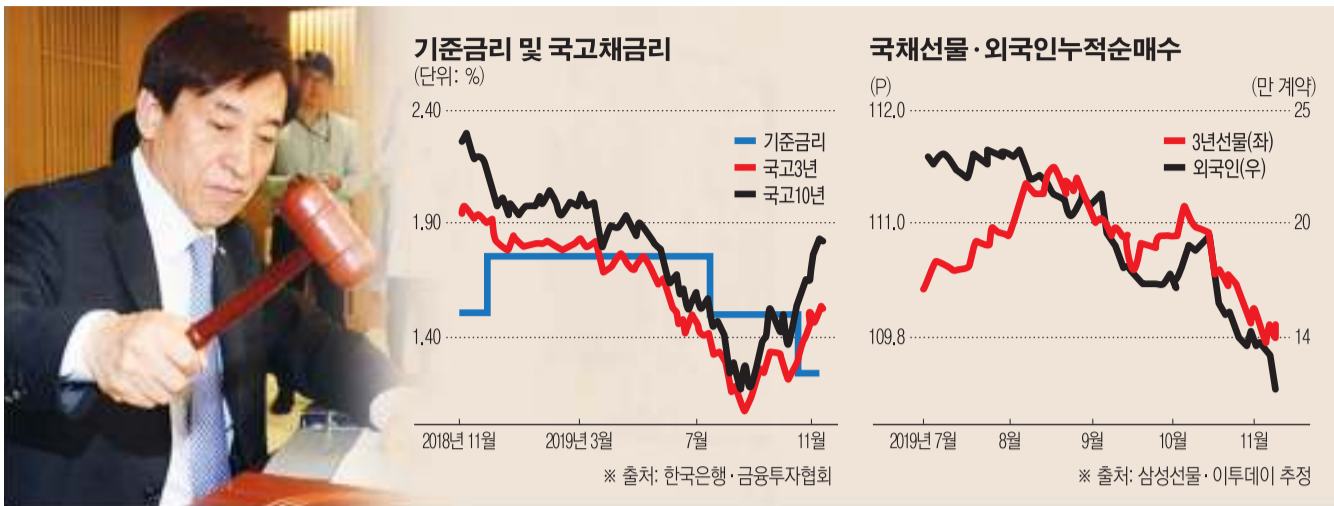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권시장 금리가 급등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한은 집행간부들과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답이다. 사실상 유구무언인 셈이다.

실제 채권시장 금리는 10월 금리인하를 기점으로 급상승 중이다. 8일 기준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1.518%와 1.803%. 금리인하 직전일인 지난달 15일(각각 1.281%, 1.499%)과 비교하면 각각 23.7bp(1bp=0.01%포인트)와 30.4bp 올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8월 중순(8월 19일 1.093%, 8월 16일 1.172%)과 비교할 경우 오름폭은 각각 42.5bp와 63.1bp에 달한다.

한은 기준금리는 환매조건부채권(RP) 7일물 금리를 타깃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채권시장은 한은 통화정책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곳이다. 소위 통화정책 파급경로상 가장 가까이에 있다.

이 같은 시장금리 역주행은 결국 금리인하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채권시장 금리와 연결돼 있는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도 상승 중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역대 최저 수준에 와 있는 기준금리를 두고 정책여력 내지 실효한 논란이 거세다. 10월 금리인하에 대한 실기론이 나오기 충분하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엔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요인들을 짚어본다.

◇ 임지원 위원 동결 소수의견의 정치경제학 = 우선 10월 금리인하가 예상보다 매파(통화긴축)적이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 참여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가 금리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확산했다. 또, 추가 인하가 있더라도 그 시점은 내년 2월 혹은 내년 상반기를 넘긴 시점에나 가능할 것으로 봤다. 결국 추가 인하를 기대하기엔 너무 멀어 보이게 된 셈이다.



‘매파적 인하’ ‘MBS·적자국채’ ‘외인 국채선물 매도’ 요인에 내년 금통위원 대거 교체까지 불거져 추가 인하 기대 어려워 채권금리, 10월 금리인하 기점 국고채 3년물·10년물 급상승

10월 금통위에서는 전통적 매파인 이일형 위원이 금리인하에 반대한 것은 물론, 그간 중립 성향으로 인식됐던 임지원 위원까지 금리인하에 반대하고 나섰다. 임 위원의 반대가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그가 이주열 총재를 제외하고 내년 이후 유일하게 남아 있을 금통위원이기 때문이다.

내년 4월 20일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위원이, 이후 8월 20일 윤연식 부총재가 각각 임기종료를 이유로 금통위원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결국 누가 차기 금통위원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 위원이 매파적 입장을 고수한다면 추가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은 합리적 추론일 수밖에 없다.

10월 금리인하 이후 발표된 통화정책방향과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것도 매파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파급시차는 통상 6개월을 넘긴다. 이에 따라 7월과 10월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려면 최소 내년 1분기(1~3

월) 내지 이를 지나야 한다는 관측이 나오기 충분하다.

마침 내년 4월 15일엔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4월 20일엔 네명의 금통위원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총선 이전엔,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의 대거 교체를 전후한 시점엔 통화정책 변경이 거의 없었다. 총선 이전 금리변경은 자칫 여론을 이롭게 만든다는 정쟁에 휘말리기 쉽고, 금통위원 교체 시기에 소위 ‘나가는 마당에’, ‘적응하느라’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10월 금리인하에 손을 들었던 한 금통위원은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이 중요한 시점인데 10월 금통위가 너무 매파적이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 제2 안심전환대출 MBS 20조·내년 적자국채 60조 = 채권 금리는 8월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 단초는 우선 제2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20조 원 발행이 제공했다.

발행규모와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30조 원 발행설 등 각종 루머(소문)가 나돌며 시장 심리부터 위축시켰

다. 결국 8월 21일 통상적인 MBS 입찰에서 매매각이 발생하면서 시장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실제 8월 21일 국고채 5년물 이상 채권금리는 전일 대비 8bp를 전후해 올랐다.

발행시기도 문제다. 한 해 영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12월부터 발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MBS 발행 시 주된 매수주체는 은행들이다. 그렇잖아도 MBS 인수를 위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들은 그만큼 국고채 매수를 미루거나 기존 매수했던 국고채를 팔아야 한다. 연말과 맞물리면서 매수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8월 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를 60조2000억 원이나 발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는 올해 적자국채 물량 33조8000억 원(실제 계획물량 31조9000억 원)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 초까지 채권시장은 제2 안심전환대출 관련 MBS와 증가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월 금통위 이전부터 채권시장에서는 10월 금통위를 기점으로 시장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뤘었다. 금통위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관심의 초점은 연말과 함께 MBS 발행과 증가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옮겨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 [김남현의 채권 일가일부] “떡(금리인하) 하나 주면 안잔

아 먹자-” 시즌2, 2019년 10월 14일 기사 참조).

◇ 외국인 국채선물 대량 매도 =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 매도도 채권금리 상승을 부추겼다. 특히 10년 국채선물 시장에서는 10월 7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2010년 말 국채선물 재상장 이후 역대 최장 순매도 기록으로, 같은 기간 순매도 규모는 3만4449계약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누적순매수 포지션 추정치를 보면 7일 기준 3년 선물 시장에서는 11만7107계약, 10년 선물 시장에서는 2만1055계약을 기록 중이다. 이는 각각 1년 8개월과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다.

외인의 선물 대량 매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우선 미·중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 가능성이 확산했고, 노딜 브렉시트(영국의 합의 없는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줄고 위험선호현상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현물 채권투자에 나서는 외국인

과 달리 국채선물투자 외국인은 주로 단기투자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실는 이유다. 실제 국채선물을 대량매도한 10월에도 외국인은 현물 채권을 3조3000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채권과 이자율스왑(IRS) 간 금리차이인 본드스왑 스프레드 역전폭이 최근 확대(와이드)된 것도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를 촉발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즉, 기존 국채선물 매수와 이자율스왑(IRS) 시장에서 페이(pay, 변동금리 수취+고정금리 지급)를 취했던 본드스왑 포지션에서, 본드스왑 와이든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청산(국채선물 매도+IRS 리시브(receive, 고정금리 수취+변동금리 지급))했다는 것이다. 실제 5년물 기준 본드스왑은 4일 현재 마이너스(-)26.0bp를 기록하며, 1년 4개월 만에 와이든을 기록한 바 있다.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 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젊은 시립에서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물론 상식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안전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우와 다르다. 선배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우를 받고 싶다면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X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대우일과, 후속한 성장일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대우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세에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나 정보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걱정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랑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유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원 정책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년 시음 / 2019년 / 국문판 / 214,800원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을 읽는 책읽기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버린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물어보게 할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한다.

이영훈 저 | 232쪽 | 488원 / 215,800원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아이들은 즐겁게! 엄마 아빠는 맘 편히!!

KB가 함께 돌봄네다

아이는 돌봄교실에서 꿈을 키우고
엄마 아빠도 걱정 없이 일터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KB금융그룹이 돌봄 걱정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KB의 더 나은 세상 만들기

QR코드를 스캔하고
돌봄교실 광고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KB금융그룹이 돌봄 공백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1,600여 개 초등학교에서 5만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2,500개의 돌봄교실 및 병설 유치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KB 금융그룹